

[ TV ]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아나운서 연예인화 지나치다”

강성곤 전 KBS 아나운서협회장 쓴소리
“방송사 조직의 통제력 상실이 주 원인”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얻는 아나운서가 늘면서 아나운서와 연예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인대회 출전, 화보 촬영, 재발가와와 결혼 등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아나운서의 ‘연예인화’는 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 아나운서협회를 거친 후 숙명여대에서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곤 KBS 아나운서(사진)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급속하게 ‘연예인화’되고 있는 최근 아나운서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강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정체성 논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 “아나운서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의 데스크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도대로 끌려다 보니 능력과 경력이 맞지 필요한 곳에 아나운서를 투입해야 하는 아나운서실 조직의 목소리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것. 그는 “연예 오락프로그램이 젊은 여자 아나운서를 원하게 되면서, 아나운서의 출연이 연예인 캐스팅처럼 일회성으로 돼버렸다”면서 “결국 노련하고 신뢰감 있는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맡지 못하게 돼 궁극적으로 아나운서 직업적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신참 아나운서가 2~3년 만에 갑자기 스타가 되면 광고 등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아나운서 조직도 이를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참 아나운서는 곤란하다고 하면 제작진 ‘그렇다면 프리랜서나 연예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작비가 올라간다’고 말하고 또 시청률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나운서들이 ‘조직의

논리’를 내세워 제작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 않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아나운서 출신 프리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해서 프리랜서를 ‘아나운서’라고 부르면 안된다”며 “그들은 아나운서라는 이름을 통해서 얻는 신뢰도를 이용해 보험회사 CF 등에서 엄청난 출연료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강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직종 자체가 젊은 여자가 하는 일로만 여겨지는 점도 지적했다. 실력 있는 남자 아나운서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남자 아나운서를 지원하는 이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는 “프로그램 양성화로 인해 남자 아나운서들이 반대로 성차별을 당하는 셈”이라며 “프로그램 제작진은 젊은 여자 아나운서를 설정에 의한 보조 연출자 또는 눈요기감으로만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어 이런 이미지가 심화된다”고 말했다.

Living TV Hollywood Hint Club (오후 2시 20분)
할리우드 스타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위대한 패러디. 다이애나 전 영국왕세자비의 사망이 패러디의 지나친 취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해진 단이다.

컴퓨터로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창업 24년 국제보청기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서석점(동구상남동생사) (062) 227-9940
충장점(충파권년)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13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MBC,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광역시방송
www.kjpbcc.com

TBN 교통방송
www.tbn.co.kr

BBS 불교방송
www.bbs.co.kr